

짐 스피겔 박사, 종교철학, 세션 7, 새로운 무신론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7, 새로운 무신론입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신의 존재에 대한 여러 주장과 신을 믿는 이유를 살펴보았으니, 반대 관점인 무신론과 몇 년 전에 상당한 문화적 영향을 미친 새로운 무신론이라는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무신론자의 주장 중 일부를 살펴보고, 저는 무신론에 대한 일종의 분석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는 성경적 분석이며,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이라는 현상을 생각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새로운 무신론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기본적으로 2004년 샘 해리스의 책인 신앙의 종말이 출판되면서 시작된 운동이며, 그 후 리처드 도킨스, 크리스토퍼 히친스, 대니얼 데닛과 같은 사람들이 다른 여러 책을 매우 빠르게 연달아 출판했습니다. 사실, 도킨스, 해리스, 히친스, 데닛이라는 네 명의 학자는 일부 지역에서 무신론자의 네 기수 또는 새로운 무신론자 종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스포드에서 오랜 생물학자로 일한 리처드 도킨스를 포함한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수사학 중 일부에 대한 샘플입니다. 그는 구약성서의 신이 모든 허구에서 가장 불쾌한 캐릭터라고 주장하며, 질투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사소하고 불의하고 용서하지 않는 통제광이며, 보복적이고 피에 굶주린 인종 청소자이며, 여성혐오적이고, 동성애혐오적이고, 인종차별적이고, 유아살해적이고, 집단살해적이고, 자식살해적이고, 전염병적이고, 광신적이고, 사도마조히즘적이며, 변덕스럽고 악의적인 괴롭힘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과 신의 망상에 대한 그의 설명입니다.

그 사진에서 벤 스틸러와 님은 샘 해리스가 있습니다. 그는 명제의 진실성을 고려할 때, 증거와 논리적 주장에 대한 정직한 평가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다른 지적 성실성 기준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삶의 한 영역입니다.

그것은 그의 Letter to a Christian Nation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책은 전적으로 2인칭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흥미로운 책입니다. 해리스는 또한 9월 11일의 잔혹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서양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묘사한 것처럼 확실히 겁쟁이가 아니었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미친 사람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결국 완벽한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결국 이것은 끔찍한 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종교를 항상 싫어하는 한 가지 이유는 종교가 우주가 당신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생각을 암시하거나, 더 나쁘게는, 알든 모르든 사람이 들어맞는 신성한 계획이 있다는 생각을 암시하는 교활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류의 겸손은 저에게는 너무 오만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한, 항상 종교적 회의론자, 불가지론자,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무신론이라고 부르는 것, 히친스, 해리스, 도킨스, 데닛과 같은 무신론자들로부터 얻은 무신론의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당신 할머니의 무신론자였던 이전의 전통적인 무신론자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나는, 내 생각에, 태도의 차이일 뿐이다. 데이비드 흄, 존 듀이, 버트런드 러셀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훨씬 더 뻔뻔스럽고 공격적인 접근 방식이 있다. 아마도 그들은 유신론을 매우 공격적이고 가혹하게 비난했던 프리드리히 니체와 더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무신론자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정한, 적어도 주장된, 과학적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믿음에 대한 과학적 정당화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무신론자들에 따르면, 그렇지 않으면 신을 믿는데 무책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주요 반대 의견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의 작품에서 우세한 두 가지 주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의 오래된 문제입니다. 전능하고 완벽하게 선한 신이 어떻게 악을 허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별도의 강의에서 그것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종교적 믿음에 대한 조사에서 주요 관심사이며, 유신론자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가정합니다.

적절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무신론에 대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과학에서 제기하는 이의로, 신에 대한 믿음, 특히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의 부활, 성경의 신성한 영감, 성경의 다양한 기적과 같은 교리는 과학적으로 검증되거나 설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과학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엄격하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 모든 교리, 그 모든 믿음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무신론자들에게도 일관된 주제입니다.

과학적 반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별도의 강의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모든 믿음이 과학적으로 근거해야 한다거나 경험적 탐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과학주의 또는 실증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실증주의 또는 과학주의의 문제점은 스스로를 반박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요구는 그 자체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스스로를 반박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앉아 있는 가지를 잘라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훼손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말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 주장이나 견해가 아닙니다. 둘째, 과학주의나 실증주의는 도덕적 진실, 아름다움에 대한 지식, 심지어 삶의 의미와 같은 것에 대한 지식의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과학에서 그런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과학은 경험적 탐구 수단이며, 정확하고 매우 유용한 사실적 세계를 설명하지만, 가치, 아름다움, 그리고 삶의 궁극적 의미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멀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주의를 고집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모든 믿음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완전한 도덕적 회의론자여야 하고, 우리는 도덕적 지식이 없다고 말해야 하며, 그런 사람은 주변에 있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약간 무섭습니다. 보통은, 글썄요, 항상 그럴지도 몰라요. 적어도 제가 새로운 무신론자를 볼 때마다, 그들은 오, 아니요, 우리는 도덕적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이 옳고, 어떤 것들이 그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정의,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도덕적 가치를 긍정하고 아마도 그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만, 요점은 그들이 정말로 과학주의나 실증주의의 신봉자라면 도덕적 진실과 가치를 일관되게 긍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관점에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 자체는 증명할 수 없는 특정 신앙 조항에 기초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중요한 관찰이 있습니다. 과학에 두는 모든 강조점과 모든 종류의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엄격해야 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과학 자체는 우리의 감각이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믿음, 자연은 균일하다는 믿음, 사고가 현실을 반영한다는 믿음과 같은 신앙적 헌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실증주의자이거나 과학주의를 긍정한다면, 과학은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없지만 그것들을 기본적인 철학적 신앙의 기사로 가정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다른 불일치가 있습니다. 새로운 무신론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실제로 신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중 많은 부분이 과학뿐만 아니라 도덕성이나 윤리 와 옳고 그름에 대한 상식적 믿음, 그리고 개인적 경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에서 리 스트로벨에 이르기까지 한때 무신론자였던 많은 주요 기독교 변증론자들은 신앙의 증거와 신의 존재에 대한 탐구적 조사를 통해 크게 개종했습니다.

이에 대한 최근의 극적인 예는 50년 가까이 무신론 지식인으로 활동했던 앤서니 플루입니다. 50년대와 60년대 초부터 그는 종교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친 여러 학술 저술을 내놓았고, 유신론자, 기독교인, 그리고 다른 유신론자들을 방어적인 입장에 몰아넣고 그들에게 증명의 책임을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무신론의 추정으로 시작해야 하며, 유신론자는 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신론자는 신을 믿을 합리적 권리도, 인식적 권리도 없습니다. 그들의 의무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것이고, 그때서야 인식적 의무를 충족하고 종교적 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플루는 무신론이라는 가정으로 학계, 특히 철학계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이나 5년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정통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우주가 초자연적 존재에 의해 생겨났다고 믿는 일종의 유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뉴스가 터졌을 때는 2005년경이었고, 국제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There Is a God*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일종의 유신론적 관점에서의 개종을 촉발한 고려 사항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주론, 우주의 존재, 우주가 인과적 설명을 가져야 할 필요성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에 비추어 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야기해 온 우주의 미세 조정은 우주에서 생명의 가능성을 허용하기 위해 다양한 자연 법칙이 얼마나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점점 더 많이 수집됨에 따라 이야기해 왔습니다.

생명의 가능성을 위한 이 모든 다른 자연 법칙들 사이의 절묘한 융합입니다. 우주는 정말로 그 가능성을 위해 설계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플루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출현, 우리는 무생물인 불활성 물질에서 생명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항상 무신론자들에게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루에게는 자연주의자의 관점에서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점점 더 많은 조사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일종의 유신론으로 개종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책, *There Is a God*를 썼을 때, 기독교에 대한 일종의 부록을 쓰라고 부탁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위대한 신약학자 NT 라이트는 플루가 NT 라이트에 대한 존경심의 깊이와, 만약 신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종교적 전통의 관점에서 어떤 특정 종류의 유신론이 있다면, 그 중 하나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기독교일 가능성이 크다는 상당한 가능성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플루는 나사렛 예수의 카리스마, 그의 담론의 본질, 사도 바울의 학문적 천재성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그의 생각에, 플루의 생각에, 이러한 유신론적 전통 중 하나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기독교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본격적인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요 종교 전통의 관점에서 기독교가 참되거나 가장 참된 형태의 유신론일 수 있다는 생각에 그가 공감했다는 지표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에 대한 증거와 다양한 유신론적 주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유신론이 정말로 강력한 증거적 지지를 가지고 있고 무신론이 근본적으로 비이성적이라면, 사람들은 증거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무신론의 원인은 무엇인가? 새로운

무신론 운동이 실제로 시작되었을 때, 저는 누군가가 무신론에 대한 성경적 설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하는 책을 쓸 것이라고 계속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증거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출간된 각 책들은 신에 대한 증거를 다루었고, 무신론에 대한 주요, 아마도 주요한 성경적 분석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글썄요, 누군가는 책을 써야 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 책, *The Making of an Atheist* 는 2010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그 책에서 전개한 주요 아이디어 중 일부에 대한 요약이 있습니다. 제가 찾고 있는 것은 단순히 무신론에 대한 성경적 설명이나 설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적어도 하드코어 무신론자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는 핵심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만 하거나 불가지론자이거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진 사람들, 심지어 데닛, 도킨스, 해리스, 히친스와 같은 독단적인 무신론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이 문제를 매우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사도 바울의 글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분명히 보여졌고 만들어진 것에서 알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물에서 자신을 분명히 보여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유신론자가 되지 않을 변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악덕이나 그가 사악함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한 일종의 강박함이나 진실의 억압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주님 안에서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인들이 생각의 허무함 속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해가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강박해져서 그들 안에 있는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신에 대한 무지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신의 진리에 대한 의지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판결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진리에 따라 사는 자는 자기가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분명히 보이기 위하여 빛으로 나오느니라. 그러므로 다시 진리에 대한 저항이라는 주제에서 예수께서는 사람의 특별한 기질 때문에 빛이라는 은유를 사용하셨다.

그것은 고의적인 저항과 거부입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모호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결론은 하나님의 현실에 대한 불신은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제 책의 한 장에서 저는 Alvin Plantinga의 Reformed Epistemology에 크게 의존하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별도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그의 위대한 3부작의 세 번째 권에서 Warrant에 대한 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은 Warranted Christian Belief라고 불립니다. 그는 거기에 죄의 인지적 결과에 대한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지는 우리의 다양한 기관계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방식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지의 적절한 기능을 손상시키는 적대적인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형성하는 측면에서 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랜팅가는 인지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 중 하나가 정신을 변화시키는 약물이나 대량의 알코올, 신체적 뇌 손상 또는

나쁜 철학과 같은 것 외에도 모든 종류의 문제에서 인지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지 기능을 손상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죄, 부도덕, 악덕으로, 이는 모든 종류의 문제, 특히 도덕적, 영적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 방식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는 우리를 인지적으로 손상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지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그것은 존 칼빈이 불리우는 것을 손상시키고, 앨빈 플랜팅가도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divinitatis* 는 자연스럽고 신적으로 부여된 타고난 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죄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신의 분명한 증거를 실제로 인식하는 우리의 능력을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킵니다. 신의 보이지 않는 속성, 그의 영원한 능력, 그의 신성한 본성은 만들어진 것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므로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죄에 자신을 내어줄 때, 특히 교만함의 죄, 극도의 교만함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모두가 씨름하는 죄라고 생각하고, 강경한 무신론자, 독단적인 무신론자의 경우, 그 경우 교만의 유혹에 굴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람에 따라, 그들이 신에 대한 믿음 측면에서 그런 종류의 인지적 차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죄의 종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Plantinga가 제 책에서 언급했듯이 죄의 인지적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길게 논의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행동과 생활 방식이 신념 형성과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 인지를 강화하고, 따라서 우리의 도덕적-영적 인식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과 지혜 문학의 여러 구절에서 이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신은 겸손하고 자발적으로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이해와 통찰력을 부여합니다. 비교적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사람도 신께

복종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제로 매우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이 아이디어에 대한 확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수 의 말씀입니다. 그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하면, 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약속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과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방식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사할 것입니다. 특히 학자라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일종의 엄격한 분석을 할 것이고, 그런 다음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게 되면 그에 따라 살 것입니다. 글썄요,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 경우 자신의 정체성과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지 여부에 대한 더 큰 통찰력과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제 책에서 저는 심리학을 포함한 다른 분야에서 제기된 여러 고려 사항을 논의했는데, 이는 특히 개인적 악덕이 우리의 적절한 기능과 신에 대한 생각을 손상시키지만, 더 일반적으로는 그 행동이 믿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 명제를 확증합니다. 수십 년 후 신을 믿게 된 전 무신론자 폴 위츠는 *The Faith of the Fatherless*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실제로 종교적 믿음을 심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 몇몇 영향력 있는 무신론 학자, 루트비히 포이어바흐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선례를 따랐습니다. 그의 책 *The Faith of the Fatherless*에서 위츠는 무신론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설명을 합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는 이유에 대한 심리적 설명을 하는데, 통계적 관점에서만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만, 그들은 인구의 5~8%가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이 읽는 여론 조사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소수만이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대다수는 항상 어떤 종류의 더 높은 힘을 믿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신론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신에 대한 90%의 인구의 믿음을 어떻게든 인지적으로 심각하게 실패했다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인구의 90% 이상이 근본적으로 그것에 대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 상태에 대한 매우 불안하고 어두운 관점입니다.

반면에 통계적 관점에서, 만약 인간이 현실의 본질에 적어도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대다수가 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략적으로 옳게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큼니다. 인류의 10% 미만만이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덜 비관적인 관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인구의 소수에 불과하다면요. 하지만 폴 위츠는 인구의 5~10%가 무신론자가 되는 이유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설명을 제공합니다. 무신론은 아버지와의 깨진 관계로 인해 발생한다는 그의 결함 있는 아버지의 가설입니다.

그는 이 결론에 도달하거나, 적어도 그는 20세기로 이어지는 현대의 모든 주요 무신론자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 가설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알다시피, 데이비드 흄에서 프로이트, 버트런드 러셀, 듀이, 니체, 그들 모두,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깨졌습니다. 아버지가 죽거나, 아버지가 가족을 떠났거나, 극도로 학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매우 시사적인 일관된 주제가 있습니다.

한편, 그는 그 시대의 주요 유신론자와 영향력 있는 유신론 사상가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들 모두는 아버지와 적절한 관계는 아니더라도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중요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강력한 유신론자이자 기독교인이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깨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츠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그는 그것이 무신론의 충분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필요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독실한 종교인,

기독교인,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졌고, 그들은 단지 강경한 무신론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전히 사람이 내리는 선택입니다. 무신론적 성향을 유지할지, 아니면 신에 대해 비통함을 느낄지, 제 생각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침묵의 대우를 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용어로 그것을 제시하고 모든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 무신론자 중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한동안 불가지론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불가지론자라고 부를 때조차도, 항상 신이 존재하고, 저는 그 신과 제 삶에 대한 그의 부름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폴 존슨의 책, 지식인(Intellectuals)은 학문적 탐구와 이론을 실제로 사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타락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최소화하는 많은 선도적 현대 지식인에 대한 매혹적인 조사입니다. E. 마이클 존슨의 책, *타락한 현대인(Degenerate Moderns)* 은 매혹적이고 불안한 방식으로 같은 일을 합니다.

그는 특히 블룸스버리 그룹의 일부 구성원인 마가렛 미드와 앨프리드 킨지와 같은 학자들을 살펴봅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여러 면에서 기독교적이지 않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합리화하는 이론을 발전시킵니다. 저는 윌리엄 제임스의 *믿음의 의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도 이야기했고, 다른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종종 믿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믿음과 행동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것은 실제로 행동에 따르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순진하게, 글썄요, 거기에 일종의 인지적 불협화가 있을 때, 사람은 그저 자신의 신념에 맞게 행동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글썄요, 많은 맥락에서 그것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덕적 맥락에서, 특히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정 신념과 모순되는 라이프스타일 선택이 있을 때, 그저 자신의 신념을 바꾸거나, 글썄요, 조금 더 조사해 보았고, 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

결국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거고요. 이 사람들을 존중하는 한 그게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을 바꾸는 것은 행동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토마스 쿤의 과학 철학도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쿤은 사람의 이론적 헌신, 즉 과학과 과학적 탐구의 맥락에서 그들이 따르는 이론적 패러다임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식과 데이터에 대한 추론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거움 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입니다 . 글썄요, 이는 과학의 맥락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삶의 맥락에서도 사실입니다.

이론적으로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 중심주의 와 태양 중심주의를 생각해 보세요. 지구 중심주의는 태양이 지구를 공전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태양이 지구를 공전하는 것을 봅니다. 지구 중심주의에 따르면 그것은 지구 중심주의 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지구 중심 주의로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 한편, 태양 중심주의는 밖으로 나가서 같은 것을 봅니다. 태양이 하루 종일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을 매일 보고,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글썄요, 저는 간접적으로 지구의 자전을 관찰하고 있고, 그것이 태양이 지구를 공전하는 인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설 과 태양 중심설은 같은 것을 관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각자는 이론적 틀을 통해 관찰하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글썄요, 그것은 우리가 이론적 렌즈를 통해 인간 경험의 데이터를 해석할 때 다른 많은 맥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일 뿐입니다. 무신론적 틀이 있고, 그것에 갇히게 되면, 신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되어야 할 것조차도, 아시다시피, 그들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해석되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즉, 진실을 억압하고 신에 대한 무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은 우리 주변에서 보는 식물과 동물, 우주의 사실, 이 모든 은하계, 그리고 우주의 미세 조정,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모든 것들과 같은 모든 생생한 방식으로 자연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것들은 제가 패러다임으로 인한 실명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는 또한 자기기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것을 믿도록 동기를 부여받은 편견이 있을 때, 사람의 믿음과 모순되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믿음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임사 체험을 한 AJ 에이어의 경우처럼요.

그는 연어를 먹고 있었는데, 그게 기관에 걸렸어요. 그는 기절했고, 결국 의식을 되찾았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가정의에게 실망스럽게 털어놓았는데, 이제 내 모든 책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논리적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는 결코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앤서니 플루가 나중에 한 것과 달리 AJ 에이어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느 정도 학자적 정직성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동기 부여된 편견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그가 유신론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를 대신하여 작은 에세이를 썼습니다. 제가 죽은 후 본 것, 이라는 제목의 이 에세이에서 그는 이를 보고했지만, 그의 가정 의사와 나는 대화와 관련하여 나온 다른 보고에 따르면, 이것은 그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 그가 공개적으로

밝힌 것보다 실제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무신론자 또는 종교적 회의론자인 많은 학자들과 논리적인 것보다 개인적인 이유로 무신론적 관점을 고집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동기 부여된 편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책에서 저는 유신론의 축복과 유신론적 믿음이 어떻게 덕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지 건강을 개선합니다. 당신이 신의 현실에 더 잘 조율될수록, 당신은 더 순종적이 될 것이고, 당신이 더 순종적일수록, 당신은 신의 현실에 더 잘 조율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일종의 선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충실한 삶은 우리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유신론의 또 다른 이점은 불평할 권리와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심리적으로 이롭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거듭거듭 하듯이 불평할 사람이 있는 것. 많은 성경 작가와 등장인물들이 하나님께 많은 것에 대해 불평하는데, 이것은 옳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 정중하고 진지하게 불평하는 것뿐입니다. 왜 우리를 이 불의와 고통에 굴복시키셨습니까? 오 주님, 언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렵니까?

그것은 일종의 정화작용이며, 심리적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우주와 그 모든 아름다움, 예술에서 기술, 식물과 동물, 자연의 아름다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진 많은 축복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사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에어컨과 토스터 오븐을 발명한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신이 인간에게 이런 종류의 기술을 생각해 낼 수 있는 합리적 능력을 부여한 것에 대해 유신론자가 감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감사나 고마움의 깊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과 우리 주변에서 관찰하는

아름다움, 또는 인체에 대해 발견하는 것과 그것이 얼마나 놀랍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해 유신론자라면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이러한 능력을 주신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을 걸친 자연 선택과 유전자 돌연변이의 결과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자연주의적 우주에서 전부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놀라운 인체와 창조된 모든 아름다운 생물, 동식물에 대해 감사해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신론의 몇 가지 이점이고, 그게 제 책을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새로운 무신론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7, 새로운 무신론입니다.